

제 7회 『인간관계론』_데일 카네기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4명
2021년 3월 14일 경남 창원시
올탑 스테디카페 석전동

6부

5장

여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까마득한 옛날부터 꽃은 사랑을 전하는 언어였다. 꽃은 비싸지 않다. -중략- 하지만 보통 남편들이 수선화 다발을 들고 집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감안해 보면, 그 꽃이 구하기 힘든 난이나, 알프스 산맥의 구름이 휘감아 도는 산에 피어 있는 에델바이스만큼이나 비싼 것으로 여겨지나 싶을 정도다. -중략- 여성들은 생일과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냥 그렇다. 아마도 그 이유는 영원히 여성들만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보통의 남성들은 평생 동안 많은 날들을 잊고 살아가는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날들도 있다.

오래전 남자들은 사냥하러 나가고 여자들은 수렵, 채집과 관련된 일을 했다.
여자들은 수확 날짜, 제사, 절기 등에 대해 민감하다.

시카고의 조지 사바스 편사는 4만 건의 부부싸움을 살펴보고, 2천 쌍을 화해시킨 사람이다. 그는 말했다. “불행한 결혼생활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소한 것들이 있지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손을 흔들어 주는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수없이 많은 이혼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게이노 매덕스는 『픽토리얼 리뷰』에 게재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좋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미국 가정에는 몇몇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아침을 먹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누려야 할 귀여운 기분풀이이다. 여성들에게 침대에서 먹는 아침은 남성들이 비공개 클럽을 다니는 것과 똑같은 즐거움을 준다.”

결국 결혼이라는 게 그렇다. 사소한 일들의 연속이 바로 결혼이다. 이 사실을 무시하는 부부에게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미국 시인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는 다음과 같은 간결한 시로 이러한 사실을 잘 요약했다.

사랑이 내게 나날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하찮은 것들로 인해 사랑이 가 버리는 게 나를 아프게 한다.

규칙5 : 작은 관심을 보여라.

행복하길 원한다면 이것을 게을리 하지 마라

무례함은 사랑을 먹어치우는 암세포이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가족보다 낯선 사람들에게 더욱 예의를 차린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낯선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말허리를 자르며, “답소사, 그 지겨운 이야기 또 하려고 그래?”라고 묻는다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다. 허락도 받지 않고 친구의 편지를 열어 본다든지, 그 친구의 개인적인 비밀을 꼬치꼬치 파고드는 것도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까운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모욕을 퍼붓는다.

다시 한 번 도로시 디스의 말을 인용해 보겠다. “놀라운 사실을 말하자면, 사실상 비열하고, 모욕적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다.”

미국인에게 사랑받는 『아침 식탁의 독재자』를 쓴 올리버 웬들 홈스는 자신의 가정에서는 독재자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사실 그는 배려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어서, 자신이 쓸쓸하고 우울할 때도 그런 감정을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다른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지 않고 혼자서 이 고통을 참는다는 건 힘든 일이었다고 홈스는 말했다.

남자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슬픈 모습, 힘든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